1911년 판 『셩경젼셔』의 서지학적 검토

-구약을 중심으로-

홍성남*

1. 서론

필자의 1960년대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평선의 고장(김제)에서 우리네 옛 설화나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의 고소설과 성서에 등장하는 모세, 욥, 다윗, 솔로몬 등의 일화를 모친의 품에서 듣고 자란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다.

옛말에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어른들의 책망에도 이야기꾼을 졸라대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화가 면면히 이어져 왔듯이, 소설 역시 밤을 세워가며 소설책을 놓기 아쉬워했던 독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1] 옛사람들이 남긴 작품은 남고 독자는 점차 사라진 지금, 대다수의 고소설은 동화나 몇몇 교과서에 실려 제한된 범위에서만 독서물로 자리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들이 성서를 탐독하는 횟수는 우리네 고소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을 듯싶다. 그것은 주일 혹은 미션 학원에서 행해지는 각종 채플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서를 읽는 분들을 수시로 접하기 때문이다. 성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는 점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듯싶다.

---

* 한신대학교 외래 교수, 국어국문학

1) 이주영, "한국 고전소설의 독자," 이상택 외 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파주: 돌베개, 2005), 127.

조선 왕조 소설의 독자층은 한문과 국문을 아는 식자층 남성과 여성, 국문만 아는 남성과 여성 등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국문본의 독자층은 왕실 혹은 사대부가의 부녀자와 평민 여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에 퍼져 있었다.[2)]

작품 출판이 자유롭지 못하던 조선 시대에는 국문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이 이를 읽음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고,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만이나 근심을 해소할 수 있었기에, 소설 읽기에 빠져 가사를 게을리 함은 물론, 세책가(貰冊家)에서 책을 세내어 읽었을 정도로 성하였다.[3)] 때문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소설을 배격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4)]

19세기에 조선의 쇄국과 방벽을 뚫고 들어와 토착민들의 이교[異敎, 신교(新敎) · 서교(西敎)]에 대한 항거를 무릅쓰면서 천주교와 기독교 선교사들의 순교에 따른 교세 확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왔다.

신교(新敎)는 광무(光武) 9년[을사(乙巳), 1905년]경에 『셩경』을 읽으며 자기 반성을 하여 신앙심을 돋우는 사경회(査經會)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고, 융희(隆熙) 3년[기유(己酉), 1909년]에는 100 만명의 신자를 얻으려는 '백만구령운동(百萬救靈運動)'이 벌어질 정도였다.[5)]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무질서, 천주(天主)의 존숭, 천당과 지옥의

---

2) 최운식, 『개정판 한국 고소설 연구』 (서울: 보고사, 2004), 126-135.

3) 최운식, 『개정판 한국 고소설 연구』, 132-133.

4) 최운식, 『개정판 한국 고소설 연구』, 63-83. 조선조 전기 대다수 유학자들은 고소설에 대해 심성 수양에 방해가 되고 인륜 도덕을 해하고 허구성과 비사실성, 반체제 성향, 집안 일 방해, 상스런 말과 천박한 문체 등을 들어 소설을 배격하는 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소설은 비록 허구적이나 그 허구적인 얘기를 통해 삶의 진정성 표현, 무료함을 달래 주고, 즐거움과 여유를 갖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착한 마음을 갖게 하며, 세상을 교화시키고 조선 후기의 모순된 사회를 우의적으로 비판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들어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유학자들이 종종 있었다.

5) 李基白, 『改正版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1982), 394-395.

설(說) 표출 등 서교(西敎)[서학(西學)]의 교리는 유교의 전통 질서를 이완시키거나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것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유학자들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6] 이런 부정적 시선에도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된 덕에 근대 인쇄술의 도입에 따른 활자본 신소설의 출판[7]과 기독교의 전범(典範)인 성서의 한국어 번역 발간[8], 신교육 기관의 설립[9] 등의 선교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글을 모르던 하층민이나 여성들의 문맹을 줄이는 데 일조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독교의 전거(典據)인 성서의 한국어 번역의 연원은 국내보다는 이미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존 로쓰(John Ross, 1841-1915년)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로쓰 역본(譯本) 『예수셩교젼셔』 이후 성서번역자회 분들의 손을 거쳐 1906년 신약의 『셩경젼셔』 수정판이 간행되었다. 레이놀드, 언더우드, 게일, 피어드, 이승두(李承斗), 김정삼(金鼎三) 등이 참여하여 1910년 『셩경젼셔』의 번역이 끝나고, 1911년에 간행되어 당년(當年)에 8000권이 발매되었다.[10] 이리하여 신, 구약성서의 번역이 마침내 완성을 보게 된 셈이다.

2011(辛卯, 신묘)년은 미국인 방거(房巨, 1853-1932년)에 의해 1911년 판 『셩경젼셔』가 세상에 출현한지 일백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

6) 홍성남, "李遇駿(1807~1867)이 바라본 서학," 『임태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7), 629.

7) 최운식, 『개정판 한국 고소설 연구』, 172. 갑오경장 이후 신소설이 출판되면서 고소설도 신소설과 같은 체재를 갖추어 여러 곳에서 출판된 것이 活字本(활자본)이다. 최초로 출판된 것은 1912년 8월 27일 보급서관에서 발행한 『옥중화』이다. 이것은 이해조(1869~1927)가 『춘향전』을 개작한 것이다. 이후 『심청전』을 개작한 『강상련』(1912년 11월 25일, 광동서국), 토끼전의 개작인 『불로초』(1912년, 유일서관) 등이 출판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활자본 고소설은 여러 출판사에서 193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8) 申昌淳, 『國語近代表記法의 展開』 (서울: 태학사, 2003), 22-23.

9) 李基白, 『改正版 韓國史新論』, 391-394.

10) 申昌淳, 『國語近代表記法의 展開』, 164-184.

1911년 판『셩경젼셔』에 관한 논의는 민영진,[11] 신창순(申昌淳)[12]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민영진, 신창순 두 교수님의 논저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11년 출판된『셩경젼셔』원전을 차분히 읽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선 일제 악정 아래 당시 믿음의 조상들이 읽었던 활자본『셩경젼셔』발간에 공력을 기울였던 분들과 한글을 모르던 하층민들이나 부녀자들이 이 성서를 통하여 한글을 깨우치고 우리네 웃어른들이 즐겨 보았던 활자본 고소설과 신소설[13]을 읽었던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 글과 말을 지켜낸 분들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1911년『셩경젼셔』의 서지학적 검토를 통하여 이 성서의 외면적인 특성을 살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네 활자본 고소설의 구문과 대비해 보면『셩경젼셔』가 발간된 일백 여년 전 기술된 한글 표기의 여러 특성을 규명해낼 것으로 생각한다.

2. 문헌 검토

고소설은 작자가 밝혀진 지명(知名) 작자보다는 실명(失名)된 작자가 많은 것은 소설의 효능을 배격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여성 작자가 본인의 이름 밝히기를 꺼리던 풍토, 필사 혹은 판각(板刻)하는

---

11) 閔泳珍,『國譯聖書硏究』(서울: 성광문화사, 1984), 13-33; 민영진, "창셰긔(1906/1911년) - 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Cannon&Culture」4:1 (2010), 5-37.

12) 申昌淳,『國語近代表記法의 展開』, 163-206.

13) 최운식,『개정판 한국 고소설 연구』, 172. 활자본은 대개 縱書(종서)로 썼는데, 대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더러는 띄어쓰기를 한 것도 있다. 대개는 대화와 地文(지문)을 구별하여 적지 않았으나, 이를 구분하여 적은 것도 있다. 순한글로 적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자를 ( ) 안에 넣은 것도 더러 있다.

과정에서 작자의 이름 누락 등의 요인 때문이다.[14] 반면에 성서 번역은 참여한 분들의 이름이 판권에 기술되어 원전 텍스트를 연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대조를 이룬다.

문헌 검토는 서지 사항, 어휘, 문법, 텍스트의 위상 등 외적 사실에 근거를 둔 논의이다.

2.1. 서지 사항

1911년 『셩경젼셔』는 상 · 하 2권으로 분책되어 있다. 상권 표제지에는 "구쥬 강싱 일천구빅십일 년 셩경젼셔 대일본 명치 ᄉ십ᄉ년 죠션경셩 대영셩셔공회 발간"이라고 적혀 있다. '대일본 명치 ᄉ십ᄉ년 죠션경셩 대영셩셔공회 발간' 옆 좌우에는 '檀紀四二九0年……, 忠淸南道 洪城郡 廣川邑 瓮岩里(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金…….'라는 펜으로 쓴 기사가 보인다.

위의 권1 기록으로 보아 『셩경젼셔』는 1911년[辛亥, 명치(明治) 44년] 조선 경성의 대영성서공회에서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성서는 46년이 지난 1957년[단기(檀紀) 4290년]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사시던 金某氏가 소장했던 성서였던 것 같다. 그 다음 장 중앙에는 "THE OLD TESTAMENT IN KOREAN, 1911"이라는 간기에 이어 하단에는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라는 기사로 보아 『셩경젼셔』는 한국과 영국성서공회에서 1911년 합작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 다음 장은 "(大正四年十二月七日第三種郵便物認可) 基긔督□…" 라는 제호(題號) 밑에는 "셩경연구 구약략론 舊約略論(一) 牧師 洪鍾肅 창셰긔 一、져술쟈와 그의 츌싱디 희부리민족… 츌애급긔 一 、져술쟈와 그의 츌싱디 본서는…… 레위긔 一、져술쟈와 그의 츌싱디 창셰긔 츌애급긔두칙을져작ᄒᆞ이와갓흠…… 그리스도의精神을

14) 최운식, 『개정판 한국 고소설 연구』, 113-126.

밧은者는 洋의東西와時의古今을 莫論ᄒᆞ고 和合團結아니ᄒᆞᆫ者 업섯슴니다 그러나…….”라는 논제의 기사가 실려 있다.[15] 대정大正 4년(乙卯, 1915년) 12월 7일 총독부에서 우편물 인가를 받은 기독교 관련 신문 내지 연구서에 실린 홍종숙(1877년~?) 목사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보아 구약성서에 관련된 기사가 발간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대에 구약성서를 쉽게 이해하려는 분이 해당 기문을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셩경젼셔』목록 1과 2가 기재되어 있는데 도시(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표 1>『셩경젼셔』목록 일

目錄	章/篇	쪽수
창셰긔	五十章	일쟝
츌애굽긔	四十章	빅오십삼쟝
레위긔	二十七章	이빅칠십구쟝
민수긔	三十六章	삼빅륙십오쟝
신명긔	三十四章	ᄉᆞ빅팔십구쟝
여호수아	二十四章	륙빅오쟝
ᄉᆞᄉᆞ긔	二十一章	륙빅칠십구쟝
룻긔	四章	칠빅오십오쟝
삼우엘 젼	三十一章	칠빅륙십칠장
삼우엘 후	二十四章	팔빅륙십구쟝
렬왕긔 샹	二十二章	구빅오십칠쟝
렬왕긔 하	二十五章	쳔오십구쟝
력ᄃᆡ 샹	二十九章	쳔빅오십삼쟝
력ᄃᆡ 하	三十六章	쳔이빅ᄉᆞ십삼쟝
에스라	十章	쳔삼빅오십일쟝
느헤미야	十三章	쳔삼빅팔십삼쟝
에스더	十章	쳔ᄉᆞ빅이십칠쟝
욥	四十二章	쳔ᄉᆞ빅ᄉᆞ십구쟝
시편	百五十篇	쳔오빅삼십삼쟝
즘언	三十一章	쳔팔빅이십구쟝
젼도	十二章	쳔팔빅구십구쟝

15)『셩경젼셔』상 신명기 34장 말미와 여호수아 1장 앞 사이에도 홍종숙 목사의 민수기 강해 기사가 실려 있다.

<표 2> 『셩경젼셔』 목록 이

目錄	章	쪽수
아가	八章	쳔구빅이십삼쟝
이사야	六十六章	쳔구빅삼십칠쟝
예례미야	五十二章	이쳔구십칠쟝
이가	五章	이쳔이빅팔십오쟝
에스겔	四十八章	이쳔삼빅일쟝
다니엘	十二章	이쳔ᄉᆞ빅오십구쟝
호세아	十四章	이쳔오빅칠쟝
요엘	三章	이쳔오빅삼십삼쟝
아모스	九章	이쳔오빅ᄉᆞ십삼쟝
옵아듸야	一章	이쳔오빅륙십삼쟝
요나	四章	이쳔오빅륙십칠장
미가	七章	이쳔오빅칠십삼쟝
나훔	三章	이쳔오빅팔십칠쟝
하박국	三章	이쳔오빅구십삼쟝
서반이야	三章	이쳔륙빅일쟝
학개	二章	이쳔륙빅구쟝
세가리야	十四章	이쳔륙빅십오쟝
말나기	四章	이쳔륙빅ᄉᆞ십칠쟝

위 목록 원전의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필자의 복사본(複寫本)에는 목록 1과 2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제본 과정에서 오류가 빚어진 듯 싶다. 권2 목록 중 예례미야 다음에는 '이가'로 되어 있으나, 권2 본문에는 예례미야 다음에는 '이가'가 아닌 '예례미야 이가'로 기술되어 있음을 볼 때, 당시 성서 번역자들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목록 권1과 권2는 각권의 항목과 그에 따른 章數(장수)에 이어 항목이 시작되는 페이지 순으로 되어 있다.

권1에는 목록에 이어 창셰긔 일쟝 "一태초에 하ᄂᆞ님이 텬디를 창조ᄒᆞ하시다 …(후략)… 력ᄃᆡ하 삼십륙쟝(쳔삼빅오십) 23절 올나가고져ᄒᆞ면 그 하ᄂᆞ님 여호와씌셔 흠씌ᄒᆞ실지니 다 올나갈지어다 ᄒᆞ더라." 구절까지 실려 있다.

앞 목록 권1에는 창세기부터 전도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기실

권1은 역대하 23절까지만 실려 있다. 이는 성서 각 항목의 분량이 많아짐에 따라 부득이 권1과 권2의 분량을 균등하게 편성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상기한 목록 권2 역시 아가서부터 말라기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기실 권2는 에스라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실려 있다. 권1 목록에는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의 항목이 보이는데, 권2 본문에는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 각 항목이 일관되게 실려 있다. 이는 권1과 권2의 각권에 수록된 첫 항목과 끝 항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오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진다.

권2에는 에스라 항목에 에스라 일쟝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씌셔 예레미야의 입을 빙쟈ᄒᆞ야 ᄒᆞ신 …(후략)…말나기 ᄉᆞ쟝 6절 두렵건대 내가 림ᄒᆞ야 져주로써 싸흘 칠가 ᄒᆞ노라 ᄒᆞ시더라" 구절까지 실려 있다.

이로 보건대 1911년 발행된『셩경젼셔』권1에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총 14 항목[16]이 수록된 것이고, 권2에는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 총 25 항목[17]이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하권 말미에 기재된 사항을 보자.

明治四十四年三月三日印刷(명치 44년 3월 3일 = 1911년 3월 3일에 인쇄됨)

明治四十四年三月六日發行(명치 44년 3월 6일 = 1911년 3월 6일 발행됨)

發行者 京城鍾路 美國人 房巨(발행자는 경성 종로에 거주한 미국인 방거)

---

16)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17)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이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印刷者 横濱市太田町五丁目八十七番地 村岡平吉(인쇄자는 일본 횡빈시의 촌강평길)

發行所 京城鍾路 美國聖書公會(발행소는 경성종로에 있던 미국성서공회)

印刷所 横濱市山下町八十一番地 福音印刷合資會社(인쇄소는 일본 횡빈시 복음인쇄소)

위의 권2 기록으로 보아 1911년 3월 3일 『셩경젼셔』가 인쇄되고 같은 달 6일 경성 종로에 있는 미국성서공회 이름으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발행자는 육영공원 교사와 배재학교 교장으로 봉직한 방거(房居, 1853~1932)[18]였으며, 일본인 村岡平吉(촌강평길, 무라오카 헤이키치)에 의해 횡빈(横濱, 요코하마)에 있던 福音印刷合資會社(복음인쇄합자회사)에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판 『셩경젼셔』가 간행되기 이전 이 성서에 수록된 39권 중에 창셰긔, 시편, 삼우엘젼, 삼우엘후, 출에굽긔, 렬왕긔상 · 렬왕긔하, 이사야 등의 낱권들은 이미 1906년부터1908년에 출판되어 보급되다가, 1911년 『셩경젼셔』가 간행될 때 판형까지 그대로 실렸다.[19] 이로 미루어 보건대 1911년 판 『셩경젼셔』는 기왕 출판 보급된 각 권을 수합하여 만든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2.2. 표기 방식

1911판 『셩경젼셔』 상 · 하권은 동일하게 각 권의 제목에 이어 본문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매 쪽마다 네모 테두리에 들어 있다. 테두리

18) 벙커(Bunker).

19) 민영진, “창셰긔(1906/1911년)-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10.

안에는 대개 매 행 15줄 종서(縱書)로 서술되어 있다. 테두리 위와 본문에는 장과 절(節)의 구분을 표시하는 한자(一, 二, 三……)가 씌어 있고, 테두리 밖 우측과 좌측의 여백에는 각권의 한글로 된 제목, 장, 쪽 수 표시, 하단 여백 우측 좌측 여백에는 일련번호가 한자(一, 二, 三, 四…)로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다.

『셩경젼셔』는 우리나라 활자본(活字本) 六錢小說(육전소설: 딱지본 소설의 다른 이름)인 『薔쟝花화紅홍蓮연傳젼』[20]의 경우처럼 띄어쓰기[21]가 적용되어 있다.

또한 『셩경젼셔』에는 새 문단의 시작을 의미하는 ○(방점표傍點表 · 각설표却說表 · 숨김表) 표시가 드러나 있는데,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十七 뎨이년 졍월 초ᄒᆞ로날에 셩막을 세울ᄉᆡ……[22]

○ 十 만일 양 무리 즁에서 양이나 염소로 번제의 제물노 드리거든 흠 없는 수커스로 드릴지니……[23]

방점표 ○는 우리 고소설 '화셜'[24], 'ᄎᆞ셜'[25]의 경우처럼 문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인명[26]에는 밑줄(—), 장소[27]나 국명에는 겹줄(═)을 그어

---

20) 현실문화사 편, 『古代小說 薔쟝花화紅홍蓮연傳젼』, 아단문고 고전총서 6 (서울: 현실문화, 2007), 1. 고ᄃᆡ소셜 장화홍련젼 古代小說 墻花紅蓮傳 화셜히동 됴션국셰종조ᄭᆡ에 평안도쳘산군에 ᄒᆞᆫ사ᄅᆞᆷ이 잇스니 셩은 ᄇᆡ요 명은 무용이니…….

21) 『셩경젼셔』 상 출애굽기 40장 1절, 276. 一여호와ᄭᆡ셔 모세의게 닐러 ᄀᆞᆯᄋᆞ샤ᄃᆡ…….

22) 『셩경젼셔』 상 출애굽기 40장 17절, 277.

23) 『셩경젼셔』 상 레위기 2장 10절, 279-280.

24)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서지와 해석』 (대구: 계명대출판부, 1997), 299. 화셜.

25)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서지와 해석』, 306. ᄎᆞ셜.

26) 『셩경젼셔』 상, 창세기 46장 19절, 137. 十九 야곱의 안히 라헬의 아ᄃᆞᆯ은 벤야민이오…….

27) 가나안, 애굽, 에글논, 예루살넴, 이스라엘.

인명과 구별하였으나, 각권에는 인명과 국명이 다소 출입이 있다.[28)]

다음으로 거룹[29)], 두ᄃᆡ[30)], 세겔[31)], 호멜[32)] 등의 音譯(음역)한 어휘에는 밑줄표(–)를 그어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ᄋᆞ(아래 아) 사용을 들 수 있다.

하ᄂᆞ님이 ᄯᅩ 골ᄋᆞ샤ᄃᆡ 텬하의 모든 물이 ᄒᆞᆫ 곳으로 모히고 ᄆᆞ른 흙이 드러나라 ᄒᆞ시니……[33)], ◯ 二여호와씌셔 골ᄋᆞ샤ᄃᆡ 내가 너희를 ᄉᆞ랑ᄒᆞ엿다 ᄒᆞ시매…….[34)]

2.3. 어휘 선택

1911년 판 『셩경젼셔』에는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것들이 더러 있다.

(1) 二十 므낫세가 그 렬조와 홈씌 자니 무리가 ᄌᆞ긔 궁에 장ᄉᆞᄒᆞ고 그 아ᄃᆞᆯ 아몬니여 왕이 되다.[35)]

20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36)]

(1)의 두 구절은 므낫세의 행적 대목으로, 인용문 ‘장사하고’는 피동

---

28) 『셩경젼셔』 상 민수기 32장 18절, 475. 이스라엘, 『셩경젼셔』 신명기 23장 17절, 564. 이스라엘은 _이 그어져 있다.
29) 『셩경젼셔』 상 창세기 3장 24절, 8. 거룹(그룹: 살아 있는 피조물, 날개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30) 『셩경젼셔』 상 창세기 30장 14-15절, 81. 두ᄃᆡ(들).
31) 『셩경젼셔』 상 민수기 7장 30절-37절, 389. 세겔(화폐의 단위).
32) 『셩경젼셔』 하 호세아서 3장 2절, 2511. 호멜(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곡물의 양).
33) 『셩경젼셔』 상 창세기 1장 9절, 1.
34) 『셩경젼셔』 하 말라기 1장 2절, 2641.
35) 『셩경젼셔』 상 역대하 33장 20절, 1338.
36) 『셀프성경』 역대하 33장 20절, 704-705.

사 '장사(葬事)되니'로 해야 한다.

(2) 十一 의인들아 여호와를 깃버ᄒᆞ고 즐거워ᄒᆞ며[37]

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38]

(2)의 두 구절은 용서받은 기쁨을 찬양한 다윗의 시로, '기뻐하다'라는 자동사 앞에 '여호와를'이라는 목적어는 불가하다. 따라서 '여호와 안에서'라는 처소격(處所格)으로 고쳐야 호응이 된다.

(3) 十七 뎌긔셔 내가 다윗의 ᄲᆞᆯ노 싹이나게 ᄒᆞ고 내가 기름 부은쟈를 위ᄒᆞ야 ᄒᆞᆫ 등을 예비ᄒᆞ엿도다[39]

17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40]

(3)의 두 구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피동사화해야 마땅하다.

(4) 二十九 므릇 로를 잡은쟈와 사공과 바다의 모든 함쟝이 다 ᄇᆡ에 ᄂᆞ려[41]

29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沙工)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42]

(4)의 두 구절은 두로에 대한 애가의 한 대목으로, '배에'는 탈격 '배에서'로 해야 한다.

---

37) 『셩경젼셔』 하 시편 32편 11절, 1589.
38) 『셀프성경』 시편 32편 11절, 823.
39) 『셩경젼셔』 하 시편 132편 17절, 1801.
40) 『셀프성경』 시편 132편 17절, 899.
41) 『셩경젼셔』 하 에스겔 27장 29절, 2348.
42) 『셀프성경』 에스겔 27장 29절, 1193.

(5)八 너희는 ᄋᆡ곡ᄒᆞ기를 동졍녀가 어려서 남편이 죽으매 굵은 뵈 띄를 띄고 슯히우ᄂᆞᆫ 것 깃치 ᄒᆞ라.[43]

8 ○너희는 애곡(哀哭)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베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44]

(5)의 두 구절은 농사를 망친 백성의 통곡을 언술한 대목으로, 여자의 약혼한 대상은 '남편'이 아니고 '약혼자' 내지 '남자'가 바른 표현이다.

한편 『셩경젼셔』는 한글 전용이기는 하나 한자를 모르면 어휘를 잘못 이해하여 전혀 상반된 오독(誤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 더러 있다.

一 여호와가 전에 말ᄉᆞᆷᄒᆞ신대로 사라를 권고ᄒᆞ샤 그 허락ᄒᆞ심을 좃차[45]

1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46]

(6)의 두 구절은 이삭의 출생을 언술한 대목으로, 여기서 '권고'는 돌보아 준다는 권고(眷顧: 돌볼 권, 돌아볼 고)의 뜻이지, 타일러 권한다는 권고(勸告)로 보면 오독할 수 있다.

(7)五 쥬ᄭᅴ셔 나를 위ᄒᆞ샤 내 원슈 압헤 샹을 베프시고[47]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48]

---

43) 『셩경젼셔』 하 요엘 1장 8절, 2533.
44) 『셀프성경』 요엘 1장 8절, 1270.
45) 『셩경젼셔』 창세기 21장 1절, 48.
46) 『셀프성경』 창세기 21장 1절, 26.
47) 『셩경젼셔』 하 시편 23편 5절, 1572.

(7)의 두 구절은 다윗의 시로, 여기서 '상'은 밥床(소반 상, 형성 문자)을 뜻한다. 잘못하면 賞(상줄 상, 형성 문자)으로 볼 수도 있다.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6), (7)의 예문처럼 한자(漢字)를 병기(竝記)하는 것이 올바른 성서를 읽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1911년『셩경젼셔』보다 79년 이후에 간행된『셀프성경』(1990년)에 수록된 구약 대목을 대비해 본 결과는 성서 연구는 여전히 보완할 점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셩경젼셔』의 위상

1911 판『셩경젼셔』는 벙커(Bunker) 등 국외 선교사들의 공력(功力)에 의하여 외국 성서가 한국어로 발간된 것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서는 1911년 이전부터 초기 선교사들과 뒤에 올 선교사들의 기독교 전파를 위하여 낱권으로 출판되어 보급되다가 1911년에 이르러『셩경젼셔』에 모두 편입된 것에 의의를 둔다.

1911년 판『셩경젼셔』의 보급은 개신교 신자 뿐만 아니라 하층민이나 부녀자들의 한글 문맹을 낮추는 계기 외에도 당시 성행했던 활자본 고소설과 함께 애국 계몽기의 성서 표기방식, 성서의 우리 말 연구 등을 구명할 수 있는 귀중한 보고(寶庫)의 원천임에 틀림없다.

알렌(Allen), 게일(James S. Gale) 등 국내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펼쳤던 선교사들은 단지 성서 보급에만 열중하지 않고, 우리네 구운몽, 춘향전, 심청천, 장끼전 등 고소설과 설화집에 수록된 얘기를 영역(英譯)할 정도로 한국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정치

48)『셀프성경』 시편 23편 5절, 817.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정부와 일본 당국의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49]

4. 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1911년 판 『셩경젼셔』는 2011년 발간 일백 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미국인 선교사 房巨의 주도로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가 합작하여 1911년 이전부터 출판 보급된 한국어 구약성서를 수합하고 다시 보완하고 번역하여 상 · 하 2권으로 만든 것이 1911년 판 『셩경젼셔』임을 알 수 있었다.

국문본 『셩경젼셔』(1911년 판)는 상권에 명시된 목록이 상권과 하권 목록 순서에 맞지 않거나 본문 기술의 방식에 다소 출입이 있는 흠은 있으나, 한글을 모르는 하층민이나 부녀자들의 문맹을 일깨우는 독본 역할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문본 『셩경젼셔』(1911년)는 비록 국외 선교사들의 국내 선교 활동을 위한 차원에서 출판된 것이기는 하나, 선교사들의 국학 사랑의식, 한글 표기 방식, 성서에 나타난 우리 말 연구를 구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일제 강점기 초인 1911년 생성된 『셩경젼셔』는 전통적인 유가의식에 투철했던 유학자들이나 일본 당국자들에게는 부정적 인식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49) 정용수, 『청파 이륙 문학의 이해』 (부산: 세종출판사, 2005), 65-79; 吳侖鮮, "韓國古小說 英譯의 樣相과 意義," 博士 論文 (高麗大學校, 2004), 1-29; 이상현, "근대 조선어 · 조선문학의 혼종적 기원-「朝鮮人의 心意」(1947)에 내재된 세 줄기의 역사," 「사이間SAI」 8 (2010), 111-159.

본『셩경젼셔』는 1956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성경전서』(개역 한글판)를 제작하는 데 큰 단서를 제공하였음은 물론이고 기독교 신자를 확장시키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조선 후기(18세기-19세기) 서양의 문물과 함께 들어 온 기독교의 전범(典範)인 성서나 고소설은 조선조 유학자들의 배격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독서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소설 독자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반하여 성서 독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자와 후자의 바뀐 양상은 마치 오늘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이 변모된 것이랄까? 아이러니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활자본 고소설 혹은 신소설과 1911년 판『셩경젼셔』가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으니 두 텍스트 간 문체를 대비하는 논의가 요구된다.

<주요어>

셩경젼셔, 셀프성경, 고소설, 배격, 독자

<Key Words>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Self Study Bible(1990), Korean Classica Novel, Rejection, Reader.

* 접수일 2011년 2월 15일, 수정일 2011년 2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1년 3월 11일

참고문헌

민영진, “창세긔(1906/1911년)-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non&Culture」 4:1 (2010).

閔泳珍, 『國譯聖書 硏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房巨, 『셩경젼셔』, 京城鍾路: 美國聖書公會, 1911.

셀프성경편찬위원회 편, 『셀프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0.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56년)』,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2.

申昌淳, 『國語近代表記法의 展開』, 파주: 태학사, 2003.

吳侖鮮, “韓國 古小說 英譯의 樣相과 意義”, 高麗大學校 博士論文, 2004.

李基白, 『改正版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1982.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파주: 돌베개, 2005.

이상현, “근대 조선어 · 조선문학의 혼종적 기원 -「朝鮮人의 心意」 (1947)에 내재된 세 줄기의 역사,” 「사이間SAI」 8 (2010).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서지와 해석』, 대구: 계명대출판부, 1997.

정길남,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4.

정용수, 『청파 이륙 문학의 이해』, 부산: 세종출판사, 2005.

최운식, 『개정판 한국 고소설 연구』, 서울: 보고사, 2004.

현실 문화 편, 『古代小說 薔쟝花화紅홍蓮연傳젼』, 아단문고 고전총서 6, 서울: 현실문화, 2007.

홍성남, “李遇駿(1801-1867)이 바라본 西學,” 『임태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7.

<초록>

1911년 판 『셩경젼셔』의 서지학적 검토

-구약을 중심으로-

홍성남
(한신대학교 외래 교수)

2011년은 『셩경젼셔』(1911년)가 출판된 지 백 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국외 선교사인 방거(房巨)의 주도로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가 합작하여 1911년부터 출판 보급된 『셩경젼셔』는 이전 시기에 낱권으로 출판된 성서를 수합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번역하여 상 · 하 2권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국문본 『셩경젼셔』(1911년 판) 구약 상권에 명시된 목록이 상권과 하권 목록 순서에 맞지 않거나 본문 기술 방식에 다소 출입의 흠은 있으나, 『셩경젼셔』 구약 상과 하의 분책, 목록, 본문 장(章)과 절 구분, 인명(人名), 지명(地名), 음역(音譯) 등의 어휘 구별 등이 일관되게 편집된 것은 독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문본 『셩경젼셔』(1911년)는 비록 국외 선교사들의 국내 선교 활동을 위한 차원에서 출판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우리 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익힌 선교사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당시 한국어 표기 양상을 구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조선 후기(18세기-19세기)에 들어 온 기독교의 전범(典範)인 성서나 고소설은 조선조 유학자들의 배격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독서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소설 독자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반하여 성서 독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

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활자본 고소설과 1911년 판 『셩경젼셔』가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으니 두 텍스트의 문체를 대비하는 논의가 요구된다.

<Abstract>

A Bibliographical Examination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with Reference to the Old Testament

Lecturer. Seong Nam Hong
(Hanshin University)

2011 is the momentous year that celebrates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With the leadership of the missionary Dalziel A. Bunker,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and the American Bible Society cooperated to publish the Korean translation into two volumes which assembled and refined the previously translated pieces of the Bible in 1911.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has a few minor faults. For instance, the list of the books in the first volume are different from the second. And the method of the text description has some problems. However, it seems that with careful regard to the readers, the version shows the editorial consistency in the proper division of each books, lists, the separation of chapter and verse, the names of the biblical characters and places, transliteration, and so o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was published in order for foreign missionaries to make effective their ministry in Korea. However, it was the definite fruit of their learning of Korean language and still remains as the primary material that

we can utilize for our examination of the Korean notation at that time.

Although the Christian Bible, introduced in the later Chosŏn Dynasty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together with the old novels were the objects systematically rejected by the Confucian scholars of that time, they have been read till now. However, while the readers of the novels have been gradually diminished, astonishingly enough, the Bible is still charming many readers.

Last but not least, we need to have a comparative study of the literary styles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with the typographic old novels that had similar origin.